

왕으로 세움 받은 솔로몬

말씀: 열왕기상 1, 2 장

요절: 열왕기상 1:39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열왕기서는 ‘왕들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도표) 솔로몬 왕부터 유다왕국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39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되었는데, 기록목적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왜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며, 바벨론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파기하고 버린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저주로 내리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축복과 말씀을 버렸을 때 받을 저주를 나열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이런 축복과 저주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 짐승들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만족 그릇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 반드시 망할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아직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흥망성쇠의 여부는 그들의 경제력 및 군사력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건에 있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는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위계승을 위한 암투와 갈등 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으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되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1:1 - 10)

1절을 보십시오. 다윗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늙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한지 어느덧 40여년이 지났습니다. 시종들은 젊은 처녀 아비삭을 구해서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로 다윗은 한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원더보이,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나이가 들자 힘을 쓸 수 없고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을 다윗을 조금이라도 붙들어 보고자 여러 가지 애를 써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윗을 이어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데에 따라서 왕국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디디아”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밋세바, 솔로몬, 나단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기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니”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I will be KING’ 이렇게 선포하고 스스로 왕위에 등극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도표) 첫째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후에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둘째 길르앗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이 아도니아입니다.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7번째 아들로서 그당시 어렸습니다. 특히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여 오늘날로 치면 BTS 같은 아이돌 스타급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한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는 성실맨, 우등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기의와 교만으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서열로 보나, 인물로 보나, 자질로 보나 나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왕이 되리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7절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했습니다. 군대와 종교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는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 왕의 신하들, 온 유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자축한 것입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두 번째 왕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삼상 10장, 16장).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고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잔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계략으로 권력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다윗이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

을 것이다, 내 맘대로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크게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늙었지만 다윗의 하나님은 늙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반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3:6-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자기 스스로 자충수(울무)를 두어 자기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성경에, 역사속에 많이 나오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모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한때 다윗을 도와 나라를 건고케 한 충신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늙어 힘을 쓰지 못하자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편에 서서 연로한 다윗을 보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자기 유익을 좇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불륜관계로 맺어진 밋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좇는 것보다는 서열상 장자이고 또 인물도 출중하고 야심과 능력도 있는 아도니아를 좇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익하고 좋아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계산과 유익을 따라 좇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시편 1장은 진정 복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당장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복을 받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탁류와 같은 세상에서, 사단이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울 수 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수양회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야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써 영적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합이 아도니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편에 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고, 다윗이 후계자로 솔로몬을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하12:24,25; 대상22:9,10; 28:4-7) 그래서 뒤에 보면 밋세바를 통해서 지혜롭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밋세바를 찾아가서 당장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책을 말해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자세가 필요함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거 밋세바 사건 때는 목숨을 걸고 왕을 책망하는 용기를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목숨을 걸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 환경을 만드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되었습니다. 앞에 나온 요압과 아비아달은 젊은 시절 충성하다가 배반하였는데 그는 한결같이 충성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잠언 20:6절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 25:13절에 “충성된 사자는 --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용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1:11 - 53)

15절을 보십시오. 밋세바는 나단이 일러준 대로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도니야의 반역 사건을 고하였습니다. 17,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밋세바는 무조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라고 영영 울면서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윗왕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을 기초로 솔로몬을 세우도록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밋세바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진정 왕의 뜻이옵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밋세바와 나단의 조언을 듣고 다윗은 옛적에 압살롬이 많은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서는 반역을 선언하고 왕권을 빼앗은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서 왕궁에서 도망쳐야 하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합니다. 29,30절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한 맹세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경호대장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혼 샘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뿔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외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나귀에 솔로몬을 태우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기혼샘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계곡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뿔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영접하도록 외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39,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마침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뿔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 왕 만세!!!’ 외쳤습니다. 그 소리로 말미암아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승리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탄이 아도니야를 부추켜서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릴려고 하는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야 일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야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야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야의 주위에서 아부하며 철새같이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50절에 보면 아도니야는 솔로몬이 두려워 제단 뿔을 잡고 궁궐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제단 뿔은 제물들의 피를 묻히는 곳으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제단 뿔을 잡는 것을 율법에서 허락하였습니다(출21:14). 한 순간에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그가 목숨을 구걸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18:12절 말씀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쓴 잠언 16: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III. 다윗의 유언과 견고해진 솔로몬의 왕위 (2장)

2:1을 보십시오. 다윗은 죽음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평생에 마음에 두었던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의 유언을 보면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내용과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영어성경에서는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강건하여라 그리고 남자다움을 보여라”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대장부다운 면이 있어야 합니다. 왕의 자리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려면 지혜와 분별력

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역경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왕이 나약하여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때 그 백성들은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하다, 남자답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초콜렛 복근을 키워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답다, 보스기질이 있다 하면 김두한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운동신경도 뛰어나며 배짱과 배포도 큰 그런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김두한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왕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다윗 왕이 의미하는 대장부의 모델은 다윗 왕 자신입니다. 다윗 왕은 당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대장부였습니다. 그가 대장부인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른 사람들은 그의 큰 덩치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어서 숨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칼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쳐서 이길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곰과 사자와 싸우는 목자의 심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 편의가 아닌 공의와 진리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상급을 바라고 사울의 목을 베어 온 비열한 자들을 당장에 죽였습니다. 또한 그가 진정 대장부인 것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밋세바로 인한 죄를 지적하는 서슬퍼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을 남자다운 것, 대장부다운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그가 쫓장부라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대장부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때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참된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장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율법대로 행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는 것입니다. ‘형통하다’ 는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바보 같고 시대에 뒤쳐진 것과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사단의 농락으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왕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됩니다.(4). 이것이 열왕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왕들은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왕들은 그 결국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 랜시가 10살 때 돌아가시면서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래서 링컨은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철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럴때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여러가지 악행을 한 자들과 선행을 한 자들에게 합당한 벌과 상을 줌으로 공의를 세우도록 권면 하였습니다. 3가지 인데요, 먼저는 요압이 무죄한 자들 곧 전임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을 언급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갚도록 명합니다(5,6).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은 암살죄의 반란 때 그들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므로 선대하도록 명합니다(7). 또 베냐민 사람 시므이의 경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는데 그의 죄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도록 명합니다(8,9).

유언을 마친 다윗 왕은 왕이 된지 40년이 되었을 때 곧 그의 나이 70이 되었을 때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10).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은 후 아도니야가 밋세바에게 찾아와 본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여호와로 인해 왕위가 솔로몬에게 갔으니 그 대가로 선왕을 모셨던 수넬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말은 그가 본래 왕이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방해하시는 바람에 아쉽게 놓쳤다는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은 요구 정도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요구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선왕을 섬겼던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선왕의 장자인 것을 과시하는 것이 되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요구를 감히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도니야가 숨은 실세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점점 아도니아에게로 실제적인 권력이 이동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밋세바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전에 그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그가 자숙하지 않고 여전히 자고한 마음을 품고 악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브나야를 보내 그를 죽였습니다. 또 이전에 쿠데타의 주모자였던 요압과 아비아달 역시 각각 처형과 추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 주거지 제한 명령을 어긴 시므이도 그 책임을 물어 처형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46).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임을 견고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점차 당을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별하고 인본주의 누룩을 제거하고 복음주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임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도모를 폐하심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충성된 자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한결같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